



데이빗 영맥주석

요한이서

David Spriritual Commentary

들어가는 말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쭙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

석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화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
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
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저자 데이빗리 목사 올림

요한이서 1장 =====

[요이 1:1]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요이 1:2]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으로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칭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교회의 행정적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친히 목도하고 생명의 도를 체득한 영적 어른으로서 교회를 향해 지니는 목회적 권위와 사랑을 뜻합니다.

수신자인 '부녀' <퀴리아>는 표면적으로는 여인을 가리키는 호칭이지만, 구속사적 영맥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바 된 택한 교회, 곧 신부 된 믿음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의 자녀'는 복음으로 양육받아 진리 안에 자라가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이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근거는 인간적 친밀함이나 혈통이 아닌 '진리' <알레테이아>입니다. 이 진리는 외부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구속의 은혜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 내주하여 영원히 떠나지 않는 생명의 실재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모든 참된 교제와 사랑은 바로

이 영원한 진리라는 반석 위에서만 성립됩니다.

[요이 1:3]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 구속의 삼중 축복을 선언합니다. '은혜'<카리스>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호의를 뜻합니다. '긍휼'<엘레오스>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평강'<에이레네>은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써 주어지는 온전한 화목과 영혼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 복락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추상적인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안에서 비로소 성도의 실제 삶과 교회 공동체 속에 내주하며 역사합니다. 진리가 구속의 터전이라면, 사랑은 그 구속의 열매이자 표현입니다.

[요이 1:4]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이 1:5]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이 1:6]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은 성도들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심히 기뻐합니다. 여기서 '행한다' <페리파테오>는 삶 전체를 통한 지속적인 순종의 걸음을 뜻합니다. 진리는 지적 동의나 이론에 머물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 순종의 핵심은 '처음부터 가진 계명', 곧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복음의 시작부터 부어진 본질적 계명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계명을 구속과 억압의 멍에로 여기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사랑과 계명은 하나입니다. 사랑은 감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며, 계명의 완성은 곧 형제를 향한 십자가적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도가 계명을 따라 발걸음을 옮길 때,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공동체 전체로 온전히 흘러가게 됩니다.

[요이 1:7]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요이 1:8]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요이 1:9]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사도 요한은 세상에 널리 퍼진 '미혹하는 자' <플라노스>를 엄중히 경계합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진리의 반석에서 미끄러져 방황하게 만드는 자들이며, 그 본질은 십자가 복음의 정면 대적인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이들의 가장 치명적인 이단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거세게 흔들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고 무가치하다는 왜곡된 이 분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주와 수치로 가득 찬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만민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긴 채 골고다 언덕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저들에게는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면 대속의 죽음도 없으며 성도의 육체적 구속과 부활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요한은 교회가 전한 복음의 기초를 훌쩍 뛰어넘어 인간의 헛된 사변으로 앞서 나가는 행위를 가리켜 '지내쳐' <프로아고> 간 것이라 지적합니다. 계시된 십자가 복음의 한계를 벗어나 스스로 신령한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으며, 오직 육신을 입고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교훈' <디다케> 안에 굳게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온전히 모시게 됩니다.

[요이 1:10]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요이 1:11]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요한은 십자가의 성육신 진리를 거부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극단적일 만큼 단호한 지침을 내립니다. 당시 성도들의 집은 단순한 개인 주거 공간을 넘어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는 처소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하는 자를 집에 들이고 문안 인사를 건네는 것은 단순히 사교적인 예

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강단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의 치명적인 이단 사설을 정당한 복음으로 공인해 주는 영적 동조 행위였습니다.

요한이 인사조차 금한 것은 '참여하는' <코이노네오> 일, 곧 성도와 교회가 마귀의 파괴적 역사에 영적 파트너로 결탁되는 비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진리를 파괴하는 누룩 앞에서의 침묵과 무분별한 관용은 사랑이 아니라 영적 자살 행위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비진리의 세력과는 철저히 영적 경계선을 긋고 거룩한 단절을 선언해야 합니다.

[요이 1:12]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이 1:13]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요한은 서신의 마무리에 이르러 종이와 먹으로 기록하는 서면 전달의 한계를 넘어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는 '면대하여' <스토마 프로스 스토마> 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입과 입을 맞대듯 친밀하고 생생한 인격적 만남을 뜻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적인 교제와 일상의 모임을 멸시하

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영성만을 신령한 것으로 떠받들었지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체적인 육체를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삶과 슬픔과 떡을 나누는 온전한 교제 속에서 구현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아픈 자들의 몸을 어루만지시며 참된 교제를 이루셨듯이, 참된 영성은 결코 차가운 고립이나 비인격적 관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마주하고 연합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 <카라>이 비로소 차고 넘치게 됩니다. 교회는 홀로 떨어진 영적 지식의 섬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매' 곧 모든 참된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결되어 서로 문안하고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구속의 유기체입니다.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요한일서

초판발행	2026. 10. 9
지 은 이	데이빗리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참여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국제 신학교

꿈을 향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